

시론

스포츠 광신 '유감'

월드컵 축구가 한국을 점령했다. 사람들은 밤잠을 안자고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경기의 텔레비전 중계에 열광하고, 또 탄식하고 있다.

지역에서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을 때 영웅이 됐던 차범근 감독은 멕시코에 3대 1패, 네덜란드에 5대 0패하자 그순간 '대역죄인'이 됐다.

도에 넘치는 축구열기

마치 경제회복 척도인양

16강 진출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우뚝했던 한국사람들은 그것이 좌절되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분노하고 어께가 처졌다. 16강 진출만 하면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우뚝했던 것 같더니,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나라가 망한 것처럼 풀이 죽는 걸 보니 애국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하기가 4년전 '미국 월드컵'에서 자살골을 넣은 올림피아 대표팀의 수비수 에스코바르는 귀국한 뒤 총을 맞고 죽었다. 16강 진출실책에 분노한 과한들이 그에게 자그마치 12발의 총탄세례를 퍼부었다. 이쯤 되면 축구를 섬기는 신홍종교의 광신도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애국심에 불타는 애국자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88년 서울올림픽 이래 스포츠를 내세우는 애국운동이 국민을 다그쳐왔다. 전두환정권, 그리고 권력의 편에 섰던 자칭 지식인·전문가들은 "올림픽을 치르면 선진국이 된다"고 선전했다. "일본이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 "수조원의 흑자가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났다.

그러나 88년 올림픽에서 흑자를 올렸다가, 2002년 월드컵에서 흑자가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호들갑은 믿을 게 못된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경기장 건설비는 슬쩍 빼고 계산한 흑자이기 때문이다. "경기장은 어차피 지어야 될 고정자산이니까"라는 게 그 이유다.

그나마 지금 한국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는 프로야구인 축구전 자기 자신의 발로 뛰는 스포츠가 아니다.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는 스포츠다. 그것도 텔레비전으로

보는 오락이요, 구경거리라는 뜻에서 '쇼'다. 인기가수가 나타나면 괴성을 지르고 몰려드는 10대들의 광기나, 어른들의 축구열기나 비슷한 '대중문화현상'이다.

미국에서는 스포츠를 가리켜서 '신홍종교'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있다. 특히 올림픽에서는 스포츠가 민족주의 그리고 정치와 혼합돼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스포츠에는 정치가 개입해 왔다. 전두환정권은 프로야구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마비시키려 했고, '88 올림픽'이라는 구호로 정권을 유지했다. 김영삼정부도 일본과 함께 월드컵축구를 공동 유치해 놓고 벼슬이나 한 것처럼 우뚝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부도가 났고, 세계에 '구제금융'과 '투자'를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축구가 이겼다고 거대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다.

스포츠란 이기면 좋고, 진다 해도 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해보지도 않고 16강 진출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김치국을 마신 사실이 창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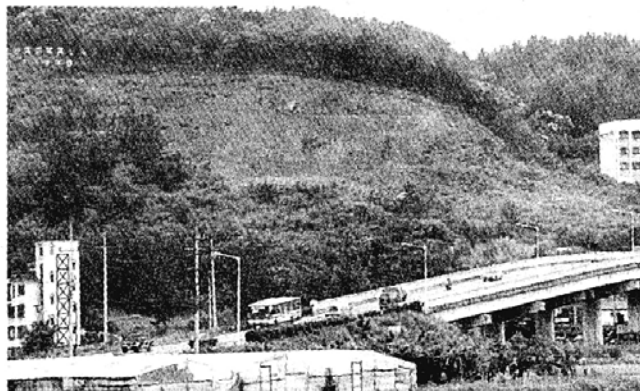
그 옛날 로마사람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빵과 서커스'만 주면 된다고 했다. 배불리 먹고, 서커스구경을 시켜 주면 복종한다는 '우민(愚民)정치'다. 지금 우리가 미처버린 '보는 축구'도 '서커스'에 해당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실익은 애국심' 경계해야

부처님은 "여러가지 흉악한 놀이와 서로 찌르고 치거나 씨름같은 갖가지 번뜩이는 놀이를 가까이하지 말라"(10의 5). 속칭 '주색잡기'의 '잡기'를 경계하셨던 것이다. 스포츠라는 이름의 '신홍종교'를 경계하고,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실익은 애국심'에 도취하지도 않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경희 (언론인)



◇ '98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경주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중함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다. 사진은 행정소속 마차를 밟고 있는 선도산 병원부지(왼쪽)와 경주 남산의 이미지에 전혀 맞지않은 흉물스런 교도소 입구.



경주 문화재 파괴현황

■천군동 확장공사=경주에 가본 사람이라면 보문호를 끼고 돌아 강포로 이어지는 천군로(보문교삼거리~보불로삼거리·5km)의 풍광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같은 정취를 느낄 수 없다. 문화엑스포의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차선인 천군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서 도로 주변을 마구 파헤쳤기 때문이다. 도로를 따라 시원스레 조성됐던 숲은 베어지고 통일신라 전성기의 성탑이 남아있는 천군동사지는 평당지 등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전조사없이 공사가 강행돼 호반도로의 정취는 사라지고 문화재의 훼손 또한 심각하다.

■동천동 고층아파트=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급속히 개발붐을 타고 있는 경주는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市)가 오히려 문화재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동천동. 원래 군부지였던 이곳을 불하받은 경주시는 신라고도의 유적이 불과 10m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파트 부지로(주)우방에 매각, 경주 왕경의 범위를 밝힐 수 있는 문화유적의 파괴를 초래했다.

■선도산 병원건립=산 정상에 거대한 마애삼존불이 있는 등 신라 천년의 유적이 즐비한 선도산의 등산행원 건립전은 계명대가 문화재 관리유산을 상대로 '경주 선도산 발굴불허처분 취소소송'이란 뜻지 못할 해프닝으로 번졌다. 문화재위원회가 '선도산에 건물을 짓는 자체가 문화유산 파괴'라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속'이라는 시 개발을 위한 재정확충이란 명목으로 이곳을 매각한 경주시의 무분별한 개발논리가 깔려있다.

■경주남산=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의 보고 경주남산은 지난해 입은 산불로 심하게 앓고 있는데다 흉물스런 교도소까지 자리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유네스코 심사단이나 문화엑스포 때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천할 지 의문이다.

열린마당

경주 보존과 개발

천년문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정재훈 <문화재위원>

경주에 가본 사람들은 역사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채 고도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아파트 등 현대식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데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경주는 도시개발과 문화유적의 보존정책 사이에 심각한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을 제1주의로 하는 도시개발의 근시안적 정책 속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정책은 당연히 지역민의 빈곤만을 강요하는 장애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새로운 창조와 태동으로 무한한 경제적 자신감을 깨달아야 한다. 발전의 걸림돌로만 보이는 문화유산을 경주시민의 눈에 자랑스러운 자존심이 되고 세계를 향한 문화시장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고도에 대한 역사적 충도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가나자와시가 제정한 '전통환경 보존 조례' 등을 마련하거나 영국처럼 보존지구나 도시전체를 지정하는 '고고학적 중요유적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영국은 문화유산의 보존지역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의 보존정책이 수립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짐으로 지정을



김영종 <경주발전협의회장>

우리나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상 불이익이 없게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등을 전면 면세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역사보존-개발이익 공존지혜 내야

김영종 <경주발전협의회장>

경주의 지역문제는 궁극적으로 개발이나 보존이나의 선택 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사람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논리를 근거로 경주도 다른 지역과 같이 지역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경주가 많은 문화유산을 담고 있어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는 보존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기에 지역적으로 너무나 광대하다. 잘못된 개발정책을 통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빈곤감 또한 너무나 짙다. 한 예로 경주시는 도시계획상 고도지역 미관지구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다가 개발공사시 건축주에게 개발비용까지 전액 부담시켜 왔다. 경주시민들은 재산권보호와 체계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역사적 고도 로마나 파리에오 오래된 건물과 문화유적을 철저히 보호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대식 고층빌딩이 들어선 지역이 존재한다. 과거의 역사보존과 현대문명이 하나의 도시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도 두가지 정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해야 한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역사도시에 걸맞게 지역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나 현대의 공존이 경주발전을 위한 기본적 행정철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적 보존... 주민 피해 최소화 해답은 고도보존법

고도 경주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문화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도보존법은 경주 부여 등 유서깊은 역사도시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문화재보호법과 달리 옛도시 전체와 주변환경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해당지역의 신·개축, 택지조성 등 고도보존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 보존특별지구와 개발제한지구 지정, 신도시 건설, 세금감면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인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도보존법에 대해 문화계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외국의 사례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정부의 재정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고도보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nia.com>

제11회 까치마을 여름 수련대회 모집안내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래와 같이 가족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이란 심신을 수련하므로써 마음과 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과 이기주의의 나뭇잎에 모르고 편하게 살려다 보니 윤리도덕은 사라지고 IMF라는 경제현상이 왔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과 협동심, 인내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나누어 주는 보시행(普施行)으로 공동체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자녀들의 심성(EQ)을 길러주는 수련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구분, 대상, 일자, 인원, 회비

- 장소: 김천 북암연수원(직지사역)
대상: 1차: 일반가족 가족 2차: 초중고생
준비물: 개인별로 쌀대(大)1되, 필기구, 세면도구, 알람5컬레, 모포, 수건5장, 손전등
마감일: 6월 30일 마감(수련회 당일엔 접수가 안됨)
행사내용: 1차: 불자로서 의해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국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가족끼리의 대화의 시간 외 기초교리등 대체로운 프로그램
2차: 불자로서 의해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국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발우공양, 미니올림픽, 찬불가, 참선의 실제등 대체로운 프로그램
접수처: 까치마을 (02)873-6646-7 FAX: (02)873-6648
회비송금처: 국민은행 (812-21-0329-747)입금상
기타: 연수후 기간중 공양을 해 주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강사: 법전스님(까치마을 총장, 지장사 주지), 범명스님, 황학현(불교 교육 연구원 원장), 정덕수(불교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까치마을 불교계서할 및 어린이회 특가한시 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스님과 선생님들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원가에 가깝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제품들의 이익금은 저희 까치마을에서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불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용 T ₩3,500원
조동학생용 노트 ₩400원
주문시기: 6월 1일~7월 30일까지
주문방법: 전화로 주문후 온라인 송금하시거나 서울, 경기지역은 방문을 원하시면 방문후 주문받습니다.
- 까치마을(지장사) 전화: 873-6646
- 혜일기획 전화: 278-1681
- 장덕수 핸드폰: 016-304-1681
담당자: 법전스님, 정덕수
온라인: 국민은행 806-24-0129-284(예금주:정덕수)
한일은행 020-175515-02-501(예금주:정덕수)
*실명이므로 송금후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티셔츠는 300여 이상 주문시 기존 나와 있는 디자인의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인쇄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성씨대보총람 IMF 긴급자금조달특별할인판매

읽기 어려운 한문족보를 대한민국 275성씨별 3,349본관별 대동보(大同譜)·세계보(世系譜)·파보(派譜)를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도록 한글 중심으로 집필.

Product advertisement for Korean surnames books. Includes images of book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